

사상방을 이용한 20대 여성 안면홍조 환자 치험 2례

¹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²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학과교실
윤수현¹, 전수형², 이인선¹

ABSTRACT

Two Case Reports of Facial Flushing of Women in Their Twenties Treated by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oo-Hyeon Yoon¹, Soo-Hyung Jeon², In-Seon Lee¹

¹Dept. of OB & 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²Dept. of Sasang Constitu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effec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acupuncture on facial flushing of women in their twenties.

Methods: Two patients who had facial flushing were treated with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acupuncture. In the first case, the patient diagnosed with Taeumin was treated by *Chungpesagan-tang* and Sa-Am Liver-sedating Acupuncture. In the second case, the patient diagnosed with Soeumin was treated by *Palmulgunja-tang*, Sa-Am Spleen-tonifying Acupuncture and *Seungyangsung-tang* which is not belong to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progress of symptoms was evaluated by NRS, frequency of facial flushing, duration time of facial flushing, amount of sweating accompanied by facial flushing.

Results: After treatment, the patients' symptoms of facial flushing were improved.

Conclusions: These case studies show tha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acupuncture are effective for the patient in their twenties who had facial flushing.

Key Words: Facial flushi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cupuncture

I. 서 론

안면홍조는 안면부 피부의 발적과 함께 동반되는 열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¹⁾. 이는 생리적인 체온조절과정의 한 부분으로 일시적인 혈관확장에 의해 피부의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1,2)}. 안면홍조는 안면부뿐만 아니라 목, 가슴 상부, 상지에도 발적을 나타낼 수 있으며³⁾ 발한, 심계항진, 불안, 분노, 신경과민, 심지어는 공황을 동반하기도 한다⁴⁾.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인자는 매우 다양하다. 전신질환, 신경계 장애,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 알코올, 약물, 식습관, 식품 첨가물 등의 요인으로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증상의 정도와 지속시간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다¹⁾.

서양의학에서의 안면홍조 치료 방법은 홍조가 나타나는 원인 및 동반 증상에 따라 다르나 베타차단제, 선택적 알파-2 길항제, 신경안정제, 인지행동치료, Botulinum toxin 피부 내 주사, 호르몬제제, 교감신경차단술, 레이저술 등의 방법이 알려져 있다⁵⁾.

한의학에서 안면홍조 증상은 心火 또는 胃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홍조에서 나타나는 안면부의 발적과 열감은 오행 중 火의 속성으로 오장 분류에서는 心에 속하며, 心의 華는 面에 나타나고, 心은 神을 藏하여 감정, 의식 등 정신활동 전반을 주관하므로 특히 감정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안면홍조는 心火와 유관함을 유추할 수 있다⁶⁾. 또한 《東醫寶鑑》에서는 面赤如醉者胃熱上熏也라고 해서 面赤과 面熱은 足陽明胃病⁷⁾이라고 보아 음식 및 음료에 의한 홍조를 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동안 한의학에서 안면홍조의 접근은 주로 폐경기에 나타나는 안면홍조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폐경기 여성의 50%에서 85% 정도가 안면홍조를 겪을 만큼³⁾ 안면홍조는 폐경기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폐경기가 아닌 여성의 안면홍조에 대해 한의학적 접근한 국내보고로는 민 등⁸⁾과 조 등⁹⁾의 보고 단 2건 뿐이고 사상체질 처방을 이용하여 안면홍조를 치료한 예는 전무하다. 이에 본 저자는 안면홍조를 주소로 한 20대 여성 환자 2명에서 사상체질을 고려한 한약 치료 및 침 치료로 양호한 치료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 례

<증례 1>

1. 성 명 : 신○○(F/26)
2. 발병일 : 2010년경
3. 초진일 : 2015년 1월 19일
4. 주소증 : 얼굴의 발적과 열감
5. 과거력
 - 1) 장 염 : 2014년 1월 2일-2014년 1월 5일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치료 받음.
 - 2) 알러지성 피부염 : 2014년 6월경 피부과에서 진단 후 약 복용함.
6. 산과력 : 0-0-0-0
7. 월경력 : 월경주기 38일 정도, 월경기간 4일, 월경량 정상, 월경통 不甚
8. 가족력 : 母(갑상선암)
9. 현병력

본 환자는 키 160 cm, 체중 56 kg의 26세

여환으로 2010년경부터 상열감과 동반하여 얼굴 전체가 빨갱게 되는 증상이 시작되었다. 외부의 온도변화가 있을 때, 감정변화가 있을 때, 기름진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홍조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간헐적으로 로컬 한의원에서 침구치료 및 한약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5년 1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 본원 한방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10. 四 診

- 1) 面 色 : 紅
- 2) 睡 眠 : 難入眠
- 3) 食慾 및 消化 : 식욕 보통, 기름진 음식 섭취 시 腹滿, 易滯
- 4) 小 便 : 정상
- 5) 大 便 : 便秘
- 6) 汗 : 보통
- 7) 舌 : 紅 苔薄白 有齒痕
- 8) 口 : 口乾, 喜冷飲
- 9) 脈 : 微弦

11. 사상체질진단 : 太陰人

환자가 작성한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Doctors(SSCQ-D)와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SSCQ-P)¹⁰⁾의 결과를 토대로 본원 사상체질과 전문의가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체형, 용모, 성격, 병증 등을 고려하여 太陰人으로 진단했다.

12. 치료 내용

1) 침 치료

0.25 mm×40 mm 일회용 호침(stainless steel, 동방침구제작소, 서울)을 사용하여 肝勝格(經渠 中封 補, 少府 行間 瀉), 中極, 氣海, 子宮, 天樞, 三陰交, 足三里에 1일 2회 자침하고 각 30분간 유침하였다.

2) 한약 치료

입원일인 2015년 1월 19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는 淸肺瀉肝湯合二門五味湯을 하루 3회(매 식후) 각 1팩씩 복용하게 하였으며, 2015년 1월 21일부터 퇴원일인 2015년 1월 28일까지는 淸肺瀉肝湯合二門五味湯加味를 하루 3회(매 식후) 1팩씩 복용하도록 하였다. 상기 한약들은 2첩 3팩, 1팩에 120 cc 기준으로 전탕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Herb Medicines

Date	Prescription
15.1.19-15.1.20 <i>Chungpesagan-tang hap immunomi-tang</i>	葛根 16 g 藁本 黃芩 8 g 白芷 大黃 桔梗 蘿菴子 升麻 4 g 麥門冬 12 g 天門冬 8 g 五味子 4 g
15.1.21-15.1.28 <i>Chungpesagan-tang hap immunomi-tang gami</i>	上記 藥材 + 杏仁 4 g

13. 평가지표

1) 안면홍조의 정도(NR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NRS(Numeric Rating System)를 사용했다. 안면홍조로 인한 가장 극

심한 불편감을 10, 불편감이 없는 상태를 0으로 하여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도록 했다.

2) 안면홍조의 발생 횟수(회/day)

환자가 하루 동안 안면홍조가 나타난

횟수를 측정하도록 하여 증상의 호전 정도를 평가하였다.

3) 안면홍조 1회 발생 시 평균 지속 시간(min/회)

안면홍조가 1회 발생했을 때 평균 몇

분 정도 홍조가 지속되었는지 시간을 측정하도록 하여 증상의 호전 정도를 평가하였다.

14. 치료 경과

Table 2. The Clinical Progress and Treatment

	NRS	Number of occurrence of facial flushing (per day)	Duration time per count of facial flushing (min)	Herb medicine	Other treatment
1/19 (Adm*)	7	6	30	<i>Chungpesagan-tang</i>	
1/20	4	1	30	<i>hap imunomi-tang</i>	
1/21	4	1	30		
1/22	5	1	10		
1/23	5	1	10		
1/24	0	0	0	<i>Chungpesagan-tang</i>	Acupuncture treatment
1/25	0	0	0	<i>hap imunomi-tang</i>	
1/26	0	0	0	<i>gami</i>	
1/27	0	0	0		
1/28 (D/C†)	0	0	0		

* : Admission date, † : Discharge date

<증례 2>

1. 성 명 : 박○○(F/27)
2. 발병일 : 2011년경
3. 초진일 : 2016년 2월 1일
4. 주소증 : 얼굴의 발적과 열감, 발한
5. 과거력 : 別無
6. 산과력 : 0-0-0
7. 월경력
초경 만 13세, 월경주기 28일에서 40일 이상으로 불규칙함. 월경주기 1일에만 월경통甚하여 진통제 2알정도 복용함. 월경불순 관련하여 로컬 병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상 이상 없다고 들음.
8. 가족력 : 父(당뇨)
9. 현병력
본 환자는 키 165 cm, 체중 56 kg의

27세 여환으로 2011년경 진로 문제로 부친과 갈등을 겪은 후부터 안면홍조가 발생하였다. 관골 부위의 발적이 심하고 주위 기온변화에 따라 홍조의 발생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로컬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본원 한방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10. 四 診

- 1) 面 色 : 紅
- 2) 睡 眠 : 難入眠, 淺眠
- 3) 食慾 및 消化 : 食後 腹滿
- 4) 小 便 : 양호
- 5) 大 便 : 양호

- 6) 汗 : 안면홍조 발생 시 얼굴과 목 주변으로 多汗
- 7) 舌 : 紅 苔薄白 有齒痕
- 8) 口 : 口乾, 喜冷飲
- 9) 脈 : 微弦
- 11. 사상체질진단 : 少陰人

환자가 작성한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Doctors(SSCQ-D)와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SSCQ-P)¹⁰⁾의 결과를 토대로 본원 사상체질과 전문의가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체형, 용모, 성격, 병증 등을 고려하여 少陰人으로 진단했다.

12. 치료 내용

1) 침 치료

0.25 mm×40 mm 일회용 호침(stainless steel, 동방침구제작소, 서울)을 사용하여 脾正格(少府 大都 補, 大敦 隱白 瀉), 中

極, 氣海, 子宮, 天樞, 三陰交, 足三里에 1일 2회 자침하고 각 30분간 유침하였다.

2) 한약 치료

2016년 2월 2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八物君子湯을 하루 3회(매 식후) 각 1팩씩 복용하게 하였으며, 2016년 2월 5일부터 2016년 2월 9일까지는 升陽順氣湯을 하루 2회(아침, 저녁 식후), 八物君子湯加味를 하루 2회(점심 식후, 자기 전) 각 1팩씩 복용하게 하였다. 2016년 2월 10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는 香附子八物湯을 하루 3회(매 식후) 각 1팩씩 복용했다. 2016년 2월 15일 퇴원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는 升陽順氣湯을 하루 1회(점심 식후), 八物君子湯을 하루 2회(아침, 저녁 식후)에 복용하도록 했다. 상기 한약들은 2첩 3팩, 1팩에 120 cc 기준으로 전탕하였다.

Table 3. Composition of Herb Medicines

Date	Prescription
16.2.2-16.2.4	<i>Palmulgunja-tang</i> 人參 8 g 黃耆 白朮 白芍藥 當歸 川芎 陳皮 炙甘草 生薑 4 g 大棗 7g
16.2.5-16.2.9	<i>Palmulgunja-tang gami</i> 上記藥材 + 砂仁 山楂 2 g <i>Seungyangsung-tang</i> 黃芪 8 g 人蔘 半夏 4 g 神麴炒 3 g 當歸 草豆 陳皮 升麻 柴胡 2 g 黃柏 甘草灸 1 g
16.2.10-16.2.14	<i>Hyangbujapalmul-tang</i> 香附子 當歸 白芍藥 8 g 白朮 白何首烏 川芎 陳皮 炙甘草 4 g
16.2.15-16.2.28	<i>Palmulgunja-tang gami</i> 上同 <i>Seungyangsung-tang</i> 上同

13. 평가지표

1) 안면홍조의 정도(NRS)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을 측정하기 위해 NRS(Numeric Rating System)를 사용했다. 가장 극심한 불편감을 10, 불편감이 없는 상태를 0으로 하여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도록 했다.

2) 땀

안면홍조시 얼굴과 목에 나타나는 땀의 양을 환자에게 자각적으로 Severe(심각), Moderate(보통), Mild(경미), No symptom(증상 없음)의 단계로 표현하도록 했다.

14. 치료 경과

Table 4. The Clinical Progress and Treatment

	NRS	Sweating	Herb medicine	Other treatment
2/1 (Adm*)	9	+++‡		
2/2	2	+++		
2/3	4	+++	<i>Palmulgunja-tang</i>	
2/4	3	+++		
2/5	2	+++		
2/6	2	++	<i>Palmulgunja-tang gami</i>	
2/7	2	++	<i>Seungyangsung-tang</i>	
2/8	2	++		
2/9	2	++		
2/10	1	+		Acupuncture treatment
2/11	2	-		
2/12	2	+	<i>Hyangbujapalmul-tang</i>	
2/13	2	-		
2/14	1	-		
2/15 (D/C*)	1	+		
2/17	1	+	<i>Palmulgunja-tang gami</i>	
2/19	1	+	<i>Seungyangsung-tang</i>	
2/24	1	+		
2/26	1	+		

* : Admission date, † : Discharge date

‡ : +++(Severe), ++(Moderate), +(Mild) -(No symptom)

Ⅲ. 고 찰

안면홍조는 얼굴, 귀, 목, 상흉부 등에 나타나는 홍반으로 일시적으로 피부 혈관이 확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혈관 확장은 체온상승에 반응하기 위한 생리적인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로서 그 결과 피부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어 안면홍조가 나타나게 된다¹⁾. 주로 홍조가 안면부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안면부에 상대적으로 피부 혈관이 많이 분포하고, 신체 다른 부위와 비교했을 때 혈관 반응 및 혈액 순환 정도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¹¹⁾. 안면홍조의 주된 증상인 피부의 발적 및 열감과 함께 발한, 오한, 심계항진, 불안, 수면장애, 기분변화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⁴⁾.

안면홍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스스로 제어할 수 없기에 증상이 발생하면 환자는 안면홍조 그 자체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우울한 기분까지 동반되어 심하면 대인 기피 등의 회피성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⁵⁾.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인자는 매우 다양하나 홍조의 감별진단으로 가장 흔한 것은 발열(Fever)로 인한 홍조, 양성 피부 홍조(Benign cutaneous flushing), 갱년기 홍조, 주사(Rosacea) 등이다. 그 외에 파킨슨병 등의 신경계통 질환, 드물게는 유암종 등의 전신질환에서도 나타나며 불안 등의 정신적인 요소, 약인성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³⁾.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호르몬 치료를 받는 남성에게도

안면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⁴⁾.

그 중 양성 피부 홍조(Benign cutaneous flushing)는 감정, 운동 상태, 기온변화, 음식이나 음료 등에 의해 유발되는 홍조를 말한다. 불안, 분노, 당황 등의 감정에 의해 안면홍조가 유발된다면 이는 양성 피부 홍조에 속하는 감정홍조로 임상적으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며 서양 의학적으로는 베타차단제 등이 치료법으로 사용된다. 운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홍조는 체온 상승의 결과로 나타나며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음식 및 음료로 인한 홍조는 그 기전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캡사이신이 포함된 매운 음식, 알코올, 티라민, 히스타민, Monosodium glutamate(MSG), 아질산염, 아황산염이 포함된 음식들이 홍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양성 피부 홍조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난다³⁾. 국내의 한 병원에서 안면홍조로 내원한 환자 94명을 분석한 결과 양성 피부 홍조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양성 피부 홍조를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은 77%로 남성에 비해 더 흔하게 나타난 것이 보고된 바 있다¹³⁾. 본 증례의 환자들 또한 안면홍조를 유발하는 기질적인 질환 없이 감정, 운동 상태, 기온변화, 음식 등에 의해 안면홍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아 양성 피부 홍조의 범주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서양 의학적으로 안면홍조는 베타차단제, 신경안정제, 교감신경차단술, 호르몬제제 등을 통해 치료하나 각 치료법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한다. 베타차단제는 서맥, 저혈압, 홍반성 피부발진,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고, 신경안정제는

현기증, 졸음, 추체외로 증상, 착란, 신경과민, 피부발진, 설사, 시야 흐려짐, 터널시 등이 나타나며, 교감신경차단술은 보상성 다한증과 미각 다한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⁵⁾. 또한 호르몬제제는 혈전색전증, 체중증가, 체액 저류, 자궁내막증식, 부정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다⁴⁾.

일상생활에서 안면홍조 증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흡연, 카페인, 뜨거운 음료, 스트레스, 매운 음식, 알코올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는 생활 관리 또한 중요하다.

안면홍조와 관련된 한의학적 병증명으로는 面赤, 面熱 등이 있다. 안면홍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얼굴 피부의 색이 붉게 변하는 것과 자각적인 열감으로 赤色과 熱은 모두 火에 속하고 오장분류로는 心에 속한다. 또한 心의 華가 面에 나타나므로 안면홍조가 心火와 유관함을 알 수 있으며 心은 神을 藏하여 감정, 의식 등 정신활동 전반을 주관하므로 특히 감정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안면홍조는 心과 관련이 깊음을 유추할 수 있다⁶⁾. 한편 《東醫寶鑑》에서는 面赤如醉者胃熱上熏也, 面熱者胃病也라 하여 얼굴에 나타나는 赤色과 熱은 胃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영양분 많은 음식을 과식하여 열이 몰려 안면홍조가 나타날 경우 調胃承氣湯, 升麻黃連湯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⁷⁾. 민 등⁸⁾은 升麻黃連湯加味方 등을 이용해 안면홍조 환자 3례를 치료하여 유효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증례의 환자들에게는 체형, 용모, 성격, 병증 등을 고려해 사상체질을 진단한 후 사상체질 처방을 이용하여 치료

에 접근하였다.

증례 1의 환자는 본원 사상체질과와의 협진을 통해 태음인으로 진단 받았으며 얼굴의 발적 및 열감의 병증과 口乾, 喜冷飲, 皮膚乾燥, 怔忡, 大便秘燥의 素症이 있어 태음인 리증의 肝熱肺燥病으로 진단해 淸肺瀉肝湯合二門五味湯을 처방하였다.

肝熱肺燥病은 肝大肺小한 태음인에게서 肝熱의 병증이 심화되어 편소지장인 肺局의 呼散之氣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병증이다¹⁴⁾. 淸肺瀉肝湯은 熱多寒少湯에 大黃 1돈을 가한 처방으로 熱多寒少湯은 治 肝熱熱症溫 燥熱病 手脂焦黑癩瘡病 虛勞夢泄¹⁵⁾하고 淸肺瀉肝湯은 熱多寒少湯證에 변비증상이 심할 때 사용하여 대변을 통해 肝의 裏熱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 본 환자에게는 淸肺瀉肝湯에 二門五味湯¹⁵⁾인 麥門冬 12 g 天門冬 8 g 五味子 4 g를 가하여 陰을 보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월 21일 이후에는 환자가 잔기침을 호소하여 杏仁 4 g을 가미하여 처방하였다.

환자는 10일간의 입원치료 후 안면홍조의 불편감이 NRS 7점에서 NRS 0점까지 감소했으며 하루에 안면홍조가 나타나는 빈도는 6회에서 0회로, 안면홍조 발생 시 지속되는 시간은 30분에서 점차적으로 줄어 퇴원 시에는 안면홍조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다. 입원 중에도 환자의 안면홍조를 심화시키던 감정변화, 온도변화, 활동 상태는 있었으나 안면홍조가 유발되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증례 2의 환자는 본원 사상체질과와의 협진을 통해 소음인으로 진단 받았으며 얼굴의 발적 및 열감의 병증 및 口乾, 喜

冷飲, 大便秘燥, 煩燥易怒, 皮膚乾燥 등의 素症이 있어 소음인 표증의 鬱狂病으로 진단해 八物君子湯을 처방하였다. 鬱狂病은 脾胃의 陽暖之氣의 손상이 생겨 腎局의 대장, 방광의 水穀寒氣의 기운이 커지게 되면서 방광에서 背膂로 상승해야 될 양기가 과도해진 水穀寒氣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여 腎局인 방광에 양기가 울축되어 背表 주위를 중심으로 熱證이 외부적으로 발현 된다¹⁶⁾. 八物君子湯은 鬱狂病의 대표적인 처방으로 治 鬱狂初證 陽明症胃家實의 효능이 있다¹⁷⁾. 升陽順氣湯은 《東醫寶鑑》에서 몹시 성내어 간을 상한 것, 사색을 지나치게 하여 비를 상한 것, 지나친 비애로 폐를 상해서 각각 해당하는 경의 화가 동하고 원기를 상하며 열이 나고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다.⁷⁾ 환자는 안면홍조가 초발할 당시 칠정상이 있었으며 평소 예민하고 감정기복이 심한 것을 참고하여 升陽順氣湯을 함께 복용하게 하였다. 香附子八物湯은 八物君子湯과 마찬가지로 소음인 鬱狂病에 쓰이는 처방이며 治 婦人思慮傷脾 咽乾舌燥 隱隱有頭痛의 효능이 있다¹⁵⁾. 칠정의 동요가 환자의 안면홍조를 심화시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香附子八物湯으로 처방을 변경하였으나 八物君子湯과 升陽順氣湯을 복용했을 때 환자 자각적으로 느끼는 효과가 더 낫다고 판단되어 퇴원약으로는 다시 八物君子湯加味와 升陽順氣湯을 처방하였다. 砂仁, 山楂는 消食導滯하는 효능이 있어 환자의 소화를 돕기 위해 八物君子湯에 가미하였다.

증례 2의 환자는 평소 감정기복이 있을 때, 주위 온도변화가 있을 때 홍조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입원

중에는 지속적으로 얼굴의 발적과 열감을 호소했고 일증변동이 크게 없어 안면홍조가 나타나는 빈도와 지속시간을 측정하여 경과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안면홍조로 인한 전반적인 불편함과 안면홍조 시 동반되는 땀의 양을 평가하여 경과 관찰의 지표로 삼았다.

환자는 15일간의 입원치료 후 안면홍조로 인한 불편감이 NRS 9점에서 NRS 1점으로 감소했고, 동반되는 땀의 양도 감소하여 퇴원시에는 입원전과 비교해 5% 정도로 남은 증상이 경미했다. 퇴원 후에도 4회 외래 치료를 받았으며 일상 생활로 복귀했음에도 안면홍조와 땀의 양이 악화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채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증례 1, 2의 침 치료에는 사상체질별 장부대소에 따른 사암침법을 운용했다¹⁷⁾. 증례 1에서 태음인은 肝大肺小하므로 肝勝格을, 증례 2에서 소음인은 腎大脾小하므로 脾正格을 이용해 사암침의 正·勝格을 통하여 장부 간의 편차를 줄여서 병증의 회복을 도왔다. 그리고 증례 1, 2 모두 월경 관련 증상의 호전을 위해 中極, 氣海, 子宮, 天樞, 三陰交, 足三里를 選穴하여 함께 치료하고자 하였다.

위의 증례를 종합해보면 두 증례 모두 사상체질을 고려한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통해 안면홍조로 인한 불편감, 안면홍조 발생횟수 및 지속시간, 땀의 양이 호전되었다. 단,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기준만으로 치료 효과가 평가되었다는 부분이 본 증례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부 표면온도 측정 장치, 피부 혈류량 측정기 등의 객관적 측정결과는 주관적 측정결과와의 상관성이 떨어지고¹⁸⁾ 치료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자가 지

각하는 불편감을 알 수 있는 주관적 측정도구가 적합하다는 면에서 본 증례에서는 주관적 측정방법을 활용하였다. 그간 안면홍조에 관한 임상 및 연구 자료가 갱년기 여성의 안면홍조에 집중된 경향이 있고, 사상체질을 활용하여 20대의 젊은 여성의 안면홍조를 치료한 국내 증례 보고가 없어 보고하는 바이다. 추후 갱년기가 아닌 여성들의 안면홍조와 관련한 임상례 및 연구 자료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안면홍조를 겪는 20대 여성 2례에 사상체질을 고려한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통해 안면홍조의 불편감, 발생 횟수, 지속 시간, 동반되는 땀의 양이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Received : Apr 24, 2017

Revised : Apr 26, 2017

Accepted : May 22, 2017

Reference

1. Ray D, Williams G. Pathophysiological causes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flushing. *British Journal of Hospital Medicine*. 1993;50(10):594-8.
2. Mohyi D, Tabassi K, Simon J. Differential diagnosis of hot flashes. *Maturitas*. 1997;27(3):203-14.
3. Izikson L, English JC, Zirwas MJ. The flushing patient: Differential diagnosis, workup, and treatment. *J Am Acad*

- Dermatol. 2006;55(2):193-208.
4. Stearns V, et al. Hot flushes. THE LANCET. 2002;360(9348):1851-61.
 5. Moon JC, et al. A Treatment of Facial Blushing with Beta Blockade and Antianxiety Drug: A report of two cases. The Korean Journal of Pain. 2005;18(2):259-62.
 6. Han JM, et al. The Study on the Korean and Western Medical Literature for Skin Aging-wrinkle, hyperpigmentation, dry skin, facial flush.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27(2):1-13.
 7. Heo J. Donguibogam. 4th ed. Gyeongsangnam-do: Donguibogam Publisher. 2010:472, 112.
 8. Min JW, Han JH. Hot Flush Patients Treated with Seungmahwangryeontang-gami and Facial Venesection: a Case-Series Study. J Physiol&Pathol Korean Med. 2015;29(6):523-29.
 9. Cho JG, et al. 3 Case of Emotional Facial Flush Treated with Gagamhwanggeum-tang. 2015;28(1):160-8.
 10. Kim JW, et al. Validity Study of the Questionnaire for Doctors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6;20(1):209-14.
 11. Wilkin JK. Why is flushing limited to a mostly facial cutaneous distribu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1988;19(2):309-13.
 12. Ikizoglu G. Red face revisited: Flushing. Clinics in Dermatology. 2014;32(6):800-8.
 13. Lee SJ, et al. A Local Clinic Experience of Facial Redness in Koreans. Korean J Dermatol. 2016;54(4):322-24.
 14. Jeon SH, Yu SJ,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aeem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Liver Heat-based Interior Heat(Gansuyeol-liyeol) disease.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5;27(1):57-70.
 15. Nationwide Collge of Oriental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dited by Profess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Jibmundang. 2011:364-5, 419, 432.
 16. Bae HS, Kim YH, Lee EJ.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Soeumin Diseas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ngestive Hyperpsychotic symptomatology.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4;26(1):27-36.
 17. Park CH. Studies on the combination of Saam's Acupuncture Method and the Four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ction of dissertations of Kyung Hee graduate school. 2010.
 18. Kim HJ, Leem KH, Kim MH.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ment of Climacteric Women's Hot Flash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6):765-74.
-